

□ 행사사진 및 언론보도



[1일차] 10. 22.(화) 심의 대상사업 설명(부서장)



[2일차] 10. 23.(수) 현장방문



[3일차] 10. 24.(목) 우선순위 결정

경상일보

2019년 10월 24일 목요일
002면 종합

**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
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**

울산 북구는 지난 22일부터 24일
까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
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있
다.

이번 회의에는 시민위원 79명이
참가해 일반행정분과, 문화·체육·복
지 분과, 환경·산업경제분과, 지역개
발분과 등 4개 분과별로 사업 예산안
을 심의한다. 방법용 CCTV설치, 육

아종합지원센터 운영, 노후 가로·보
안등 교체 공사 등 136개 사업에 167
억원이 심의 대상이다.

이날 내년도 예산 요구현황 설명
과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에
대한 부서장 설명을 시작으로 23일
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, 사업 현장
방문, 24일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등
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.

북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
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
해 의회에 제출한다.

정세홍기자 aqwe0812@ksilbo.co.kr

울산광역매일

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002면 종합

북구,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열어

사업현장방문,우선순위 심의 등...136개 사업 167억원 심의

울산 북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
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
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열고 있다.

이번 회의에는 시민위원 79명이 참
가해 일반행정분과, 문화·체육·복지
분과, 환경·산업경제분과, 지역개발
분과 등 4개 분과별로 사업 예산안을
심의한다. 방법용 CCTV설치, 육아중
합지원센터 운영, 노후 가로·보안등
교체 공사 등 136개 사업에 167억원
이 심의 대상이다.

지난 22일 내년도 예산 요구현황 설
명과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

에 대한 부서장 설명을 시작으로, 23
일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, 사업 현
장 방문, 24일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
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.

북구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
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, 의회
에 제출한다.

북구 관계자는 “예산편성 과정에
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
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
하고자 한다”며 “심의 내용을 바탕으
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
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정종식 기자

언론보도